

국외출장보고서 : 중국 연변, 베이징

1. 목 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제협력연구단 활동 계획 중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개발 경험 공유 전략 수립 및 벤치마킹과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국 연변대학교 방문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중국사회과학원 간 연례적 인문분야 학술회의 개최를 통해 양국의 인문학 교류 협력 증진에 기여
 -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 양국의 문·사·철 등 인문학 분야의 연구현황과 인문진흥정책의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방안 모색 및 한·중 양국의 문화적 교류협력 기반 구축

2. 개 요

- 출장자: 조흥식
- 출장기간: 2018.12.08.(토)~2018.12.14.(금)
- 출장지역: 중국 연변, 중국 베이징
- 출장일정:

일 자	내 용	비 고
2018.12.08.(토)	출국(인천⇒중국 연변) 연변대학교 총장단 간담회	
2018.12.09.(일)	연변대학교 훈춘 캠퍼스 방문 연변대학교 학술간담회	
2018.12.10.(월)	이동(중국 연변⇒중국 베이징) 중국사회과학원장 간담회	
2018.12.11.(화)	NRC-CASS 업무협의회	
2018.12.12.(수)	한·중 인문교류정책포럼	종합토론 토론자로 참석
2018.12.13.(목)	NRC-CASS 정기학술세미나	장소: Xin haiJinjian Hotel
2018.12.14.(금)	북경대 총장단 간담회 입국(중국 베이징⇒인천)	

3. 활동 내용

○ 12월 10일 월요일 NRC-연변대 학술간담회 참석

구분	한국어 발표·토론 진행
9:30-10:00	티타임 및 세미나 준비
개회식 (10:00-10:25)	. 개회식 - (개회사) 김웅 연변대학교 총장 - (환영사)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발표 및 토론
발표 및 토론 (10:15-10:50)	발표1 연변대-NRC 인문분야 교류협력 방안 · 발표자 : 양일모 서울대 교수
	발표2 한·중 도농 격차 문제 및 대책 · 발표자 :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발표3 한·중 학술교류 및 동북3성(연변) 지역산업 및 현황 · 발표자 : 연변대학교
10:50 - 11:40	자유토론
	협력방안 논의
11:40-13:00	분야별 업무 NRC-연변대 협력방안 논의 ※ 연구기관 원장과 연변대 내 연구소(학자/연구자) 간 분야별 협력 방안 논의
13:00-13:30	협력방안 종합정리 및 논의

○ 12월 12일 수요일 한·중 인문교류정책포럼 종합토론자로 참석

구분	대주제 : 새로운 문명과 인류
개회식 (09:30-10:00)	. 개회식(사회 : 장수화 (중국사회과학원 신식정보연구원 원장)) - (환영사)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 (개회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10:00-10:10)	< 선물 교환 및 기념사진 촬영>
기조연설 (10:10-10:50)	.(중국) 하성량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 연구원) .(한국)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제1세션	문화혁신과 사회발전
(10:50-12:00)	사회자 .(중국) 중국사회과학원 국제협력국 국장
	발표자 .(한국) 장은주 (영산대 성심교양대학 교수) .(중국) 범 주 (중국전매대학 교수)
	토론자 .(한국)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중국) 정승균(북경대 제2외국어대학 교수)
(12:00-14:00)	<오찬 : 호텔 뷔페식>
제2세션	미래사회와 인문학
(14:00-15:10)	사회자 .(한국)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발표자 .(중국) 이 하 (중국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연구원) .(한국) 송승철 (강원도립대 총장)
	토론자 .(중국) 동 결 (중공중앙당교 부교수) .(한국) 이나미 (서울대병원 인권센터장)
(15:10-15:30)	<Coffee Break>
제3세션	한·중인문교류 활성화 방안
(15:30-16:40)	사회자 .(중국) 박광해 (중국사회과학원 신식정보연구원 연구원)
	발표자 .(한국) 김하림 (조선대 부총장) .(중국) 왕 단 (베이징대 한국어과 학장, 교수)
	토론자 .(한국)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중국) 오정정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
종합토론 (16:40-17:30)	사회자 .(한국) 송승철 (강원도립대 총장)
	토론자 .(중국) 진 선 (중국인민대학 교수) .(한국)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중국) 이정화 (중국사회과학원당대중국소 연구원)

○ 조흥식 원장 종합 토론자 발표자료

새로운 문명사회에서 한-중 인문교류를 활성화하는 지혜

이번 제11회 한-중 인문교류정책포럼에서 대주제인 ‘새로운 문명과 인류’라는 큰 틀 속에서 ‘문화혁신과 사회발전’, ‘미래사회와 인문학’, ‘한-중 인문교류 활성화 방안’이라는 세 가지 소주제를 놓고서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이 함께 토론하여 지식문화 공간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문명사회’에서 표현된 ‘새로움’에 대한 단어와 인문교류에서 표현된 ‘인문’이라는 단어가 주는 매력 때문입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문명사회는 현존하는 지금의 문명사회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데 이러한 의문은 지식인들에게 깊이 생각하는 즐거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후자와 관련된 교류 가운데 인문교류는 또 다른 정치외교나, 경제, 과학기술 등의 교류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함으로써 또한 생각하는 즐거움을 가져다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11회 행사는 뭉뚱그려 말하면, 새로운 문명사회가 코앞에 다가 오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서 지금부터 한-중 인문교류를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당연히 새로운 문명사회가 현존 문명사회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학 양일모 교수님은 기초발제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지식인이 자리잡고 있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지식문화 공간에 드러난 서양문명의 도입과 헤게모니 문제에 대해 비판하면서, 개혁담론을 통한 한국과 중국지식인의 공감대 형성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인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향후 한-중의 지적 소통의 단초를 “현대 자본주의 문명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지구온난화,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생물종의 멸종 등 생태위기를 초래”하는 인류공동의 문명위기, 생태위기를 한국과 중국 지식인들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지식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로 한-중 인문교류가 계속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산대학 장은주 교수님도 ‘유교적 근대성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유교적 근대성의 문제와 그 해결의 방안을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지만 유교적 근대성 문제는 중국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적용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지금, 혼종적인 유교적 근대성에 대해 ‘성찰적 (재)근대화(reflective (re)modernization)’의 기획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인간적 삶의 지평을 열기 위한 어떤 ‘창조적 근대성’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교수님은 이러한 창조적 근대성의 기획을 강조하면서도 “이 기획이 결코 더 완전한 서구화나 합리화의 기획일 수 없다면, 그리고 그러한 시도는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라면, 전통이야말로 근대성의 창조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의 하나”임을 주장함으로써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가치와 맞닿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한국과 중국

지식인 인문교류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아울러 이 두 분의 발제를 통해서 새로운 문명사회는 문명위기, 생태위기라는 인류공통의 위기를 갖고 있는 사회라는 점과, 동시에 새로운 인간적 삶을 담보하는 창조적 근대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후자인 인문교류는 정치외교나, 경제, 과학기술 등의 교류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강원도립대학 송승철 총장님의 ‘인문학과 미래사회: 국가, 과학,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주제발표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송총장님은 “인문학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 타인에 대한 존중과 공감(=다양성의 포용), 창조의 계기 속에서 자아의 확장, 초월적 가치에 대한 탐색 등 덕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세계화 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보편적 시민의 창출과 민주주의의 유지에 핵심적 가치로서 계속 지키고 키우고 나갈 인문학의 역할임”을 강조하면서 인문학 위기의 해결방안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문화로 인한 자기소외 대신 개방과 통합을 선택하고, 더 나아가 문화와 사회의 전통이 보여주는 추상적 초월적 세계에 거주하는 대신 현실로 귀환하는 작업”과, “둘째, 지금 당장 인문학의 지형을 대학 밖으로까지 확장하려는 노력”, “셋째, 인문학과 타 학문, 특히 과학과의 관계 정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문학의 위기라 하지만 인문교류는 정치외교나, 경제, 과학기술 등의 교류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은 무엇보다도 국가 간 정치외교나, 경제, 과학기술의 만남 보다 사람과 사람 간의 인문학적 만남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모든 사람끼리 만남의 원초가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인문학적 만남은 아무런 이익이나 이해관계, 우열이나 경쟁관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 민족, 종교 등을 가진 사람들의 활발한 교류는 보편적 민주시민의 창출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진리를 추구하는 지식인의 경우야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제부터는 이러한 새로운 문명과 인문교류를 결합한 “새로운 문명사회에서 한-중 인문교류를 활성화하는 지혜”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대학 김하림 교수님은 ‘한-중 인문교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지식인들은 우선 “두 개의 대립축 -“세계-민족/ 인류-국민 / 자국문화-세계문화”의 어느 한 편에 서있는 것 보다는 경계(境界)에 서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인문학-인문학자’가 걸어야 할 길”임을 강조합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김교수님은 “대중적 차원의 민간 교류가 활발해지도록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관심사나 주제에 공동프로젝트의 추진도 한 방안일 수 있다. 한중의 인문학이 지향하는 미래상, 새로운 문명건설을 위한 기초 작업 등을 그 주제로 상정하고, 이의 성과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면, 추진력과 호응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상 네 분의 발제에서 우리는 “새로운 문명사회에서 한-중 인문교류를 활성화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함의는 바로 새로운 문명사회는 저절로 이뤄진다고 하기 보다는 특히 활발한 인문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중 인문교류를 활성화하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한-중 지식인들이 자주 만나 새

로운 문명사회 건설과 관련된 공통관심사를 담은 공동프로젝트를 만들어 착실히 추진해 가는 것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반드시 사람 존중의 인문학적 성찰을 통한 지속적인 실천이 담보돼야 할 것입니다.

○ 12월 13일 목요일 NRC-CASS 정기학술세미나 참석

구분	
개회식 (09:30-09:50)	· 개회식 - (개회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룡(成旻隆) 이사장 - (환영사) 공업경제연구소 Shi Dan(史丹) 부소장/당서기
(09:50-10:00)	< 선물 교환 및 기념사진 촬영 >
제1세션	한국과 중국의 산업발전
(10:00-12:00)	사회자 .(한국)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발표자 .(한국) 장지상(張志祥), 산업연구원 원장 .(중국) Huang Qunhui (黃群慧) 공업경제연구소 소장
	토론자 .(한국1) 김창길(金昌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중국1) Shi Dan(史丹) 공업경제연구소 부소장 .(한국2) 길홍근(吉弘根)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중국2) Deng Zhou (鄧洲) 공업경제연구소 부국장
(12:00-13:30)	<오찬 : 뷔페식>
제2세션	글로벌 제조업 개발 동향에 따른 산업협력
(13:30-15:30)	사회자 .(중국) Li Hai Jian (李海舰) 공업경제연구소 부소장
	발표자 .(중국) Li Feng Fei (李鹏飞) 연구위원 .(한국) 김동수 산업연구원 북경지원부장
	토론자 .(중국1) Liu Jia Jun (刘佳骏) 공업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한국1) 유종일(柳鍾一)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중국2) Wang haibing 王海兵 공업경제연구소 부교수 .(한국2) 조용성(趙容成)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4. 향후 연구활동 계획

- 한·중 지식네트워크 구축 TF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연변대 남·북·중 관계 정책 다이얼로그 사업추진
 - 남·북·중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발전
- 제11회 한·중 인문교류 정책포럼 및 중국사회과학원 업무 교류
 - 양국의 인문학 교류 협력 증진 및 인문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방안 모색으로 향후 인문학 연구에 활용할 계획